

“6월 뜨거웠는데”...KIA 변우혁, 아킬레스건 부상에 1군 제외

4월·5월 1할대 타율 불구 6월 15경기 타율 0.324

주전 1루수 기용되며 활약했지만 예기치 못한 부상

KIA 타이거즈의 거포 유망주 변우혁(23)이 잠시 회복기를 가진다.

2023시즌 KIA 유니폼을 입고 새 출발을 알린 변우혁은 48경기에서 타율 0.227 6홈런 20타점 OPS 0.681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성적은 기대 이하지만 최근 타격감은 양호했다.

4월(0.190)과 5월(0.184) 1할대 타율에 머물렀던 변우혁은 6월에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15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4 2홈런 6타점 OPS 0.918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KIA의 1루수 고민도 점점 사라지는 듯했다. 변우혁이 진가를 드러내자 최근 KIA는

적극적으로 변우혁을 주전 1루수로 기용했다. 올 시즌 들어 변우혁에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부상이 앞길을 가로막았다. 변우혁은 지난 25일 광주 KT전을 앞두고 왼쪽 아킬레스건에 통증을 느끼며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변우혁은 다음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KIA 관계자는 27일 변우혁 상태에 관해 “어제 서울 소재 정형외과에서 재검진을 받았다. 왼쪽 발목 아킬레스건염 소견이고 2-3일 휴식 후 상태가 호전되면 퓨처스에 등록해 경기를 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심각한 부상을 피했다. 변우혁은 회복 후 퓨처스리그에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뒤 1군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변우혁의 공백은 최원준과 황대인이 메운다. 2군에서 조정기를 마친 황대인은 지난 25일 1군 엔트리에 합류했다. 27일 광주 키움전은 최원준이 선발 1루수로 이름을 올렸다.

이슬비 기자



지난 6월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5회 초 2사 주자 만루서 KIA 박찬호의 2타점 적시타로 홈인한 변우혁과 김선빈이 더그아웃에서 축하받고 있다.

전남 카누, 전국대회 금7-은3-동4 메달 휩쓸었다

이병탁 감독 “10월 전남서 열리는 전국체전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 보완할 것”



전남 카누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수확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남도청·전남체고·목포제일여고가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제22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청 카누팀은 여자일반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탁수진은 k-1 200m에 출전해 44초018로 금메달을 수확했으며 김현희가 k-1 500m 동메달, 임성화·김소현이 k-2 200m에서 37초835의 기록으로 금메달, k-2 500m에서도 1분52

초376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소현·김현희·임성화·탁수진은 k-4 200m에 출전해 36초511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k-4 500m에서도 1분44초299로 결승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김소현, 임성화, 탁수진은 이번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남자일반부에서는 전남체육회 김경민이 c-1 1000m에서 4분06초097로 은메달, c-1 500m에서 1분57초853으로 동메달을 가져왔다.

또 전남체육고 박철웅과 홍정현은 k-2 200m에서 35초836으로 금메달, k-4 200m에서 박철웅·이진솔·이호준·조유빈이 35초915로 금메달, k-2 500m 은메달, k-4 500m에서 동메달, k-1 200m에서 홍정현이 39초795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목포제일여고등학교는 김예원·김한설·이예진·이형은이 k-4 500m에 출전해 2분08초452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병탁 감독은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전남 광양여자고등학교 축구부. (사진=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양여고 전국축구대회 우승...광영중 준우승

전남 광양여자고등학교와 광영중학교 축구팀이 전국축구대회서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는 광양여고와 광영중학교가 경남 합천에서 열린 제31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 준우승기를 들어올렸다고 27일 밝혔다.

광양여고는 이번대회 준결승에서 경남 로봇고를 4대 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이어진 결승에서 포항여고를 만난 광양여고는 전반 37분에 선제골을 내렸지만 후반 4분 상대 자책골로 동점을 만든 뒤 후반 38분 정다빈이 결승골을 터뜨려 2대 1로 역전했다.

광양여고는 후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한골차로 끝까지 지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또 지난해 춘계연맹전에서 포항여고에 내준 우승컵을 되찾아 왔다.

광영중은 조별예선에서 조2위로 8강에 진출한 뒤 강팀 현대정운중을 접전 끝에 승부차기(5-3)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또 준결승에서 노원유나이티드를 3-1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충북대성여중에 0대 6으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번대회에서 광양여고는 박인영이 최우수선수상, 조혜영이 득점상, 조여진이 GK상을 수상했으며 권영인 감독과 이슬기 코치가 최우수감독상과 최우수코치상을 받았다.

광영중은 김서윤이 우수선수상, 황다빈 득점상, 박서인 수비수, 박태원 감독과 조주빈 코치가 각각 우수감독, 우수코치상을 수상했다.

권영인 광양여고 감독은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김주형, PGA투어 출전권 얻은 대회서 통산 3승 거둘까

골프 기대주 김주형(21)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출전권을 획득했던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김주형은 오는 29일(미국시간)부터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디트로이트 골프 클럽(파72)에서 열리는 로켓 모기지 클래식(총상금 114억원 우승 상금 20억원)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 나서는 한국 선수는 안병훈, 임성재, 김성현, 김주형, 노승열이다.

김주형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7위에 올라 톱10에 진입했다. 김시우는 지난해 공동 14위였다. 강성훈도 이 대회에서 공동 37위에 오른 적이 있다.

PGA투어 2승을 거둔 김주형은 지난해 이 대회에 임시 회원 자격으로 출전했고 톱10에 진입하면서 PGA투어 회원 자격을 얻었다.

김주형은 이 대회 직후 출전한 윈덤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거뒀다. 이를 통해 김주형은 PGA 투어에서 우승한 첫 2000년대생 선수가 됐다.

세계 랭킹 50위 내 선수 중 13명이 출전한 다.

뉴시스

외국인 감독에 휘둘리는 한국 배구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 배구계를 뒤흔들고 있다. 세사르 에르난데스 곤살레스 감독은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을 연패 수령에서 구해내지 못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을 맡았던 아헨 김 감독은 단 한 경기도 치르지 않은 채 팀을 떠나버렸다.

세사르 감독이 지휘한 한국은 지난 27일 수원원정보체육관에서 열린 2023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3주차 첫 경기에서 세계 16위 불가리아에 1-3(22-25 18-25 26-24 15-25)으로 졌다.

한국은 올 시즌 발리볼네이션스리그 9

인급했다.

세사르 감독은 프로팀 감독과 국가대표팀 감독을 겸임하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국보다는 새로 부임한 프랑스 구단(넵튠스 드 낭트)이 불만을 가질 문제라고 받아냈다.

여자프로배구에서도 외국인 감독과 관련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아예 페퍼저축은행을 맡아 강팀으로 만들었다던 아헨 김 감독이 데뷔전도 치르지 전에 팀을 떠났다.

아헨 김 감독은 가정사를 이유로 사임

세사르 여자대표팀 감독, 연패에 선수 기량 탓

아헨 김, 페퍼서 일하다 돌연 아내와의 삶 선택

전 전패 수령에 빠지며 16개 팀 중 최하위를 유지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으로부터 지휘봉을 넘겨받은 세사르 감독은 국제 대회에서 1승2패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여자 배구 세계 랭킹은 14위에서 32위까지 추락했다.

세사르 감독은 연패와 세계 랭킹 하락은 자신의 전술 문제가 아니라 선수 기량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가리아전 후 기자회견에서 “개입 전술 준비에는 문제가 없다”며 “(선수들이) 국제 수준에 적응하는 데 부족하다. 국제 수준에 적응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헨 김 감독의 미국인 아내인 에이미 폴리씨는 내년 2월 출판을 앞둔 미국 프로배구 리그의 한 배구 구단에서 감독을 맡는다. 아헨 김 감독은 페퍼 구단이 아닌 아내와 함께 있는 쪽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아헨 김 감독은 구단과 선수들을 외면하고 가정을 택한 셈이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직업의식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는 비판이 배구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뉴시스

27·28호포+시즌 7승...오타니, 퍼펙트 투타겸업

시즌 27, 28호 홈런 폭발...6⅓이닝 1실점 쾌투로 시즌 7승 달성

‘이도류’ 오타니 쇼헤이(29·LA 에인절스)의 천재성이 폭발했다. 완벽한 투타겸업을 선보이며 팀에 승리를 선물했다.

오타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경기에서 선발투수 겸 2번타자로 출격했다.

타석에서 오타니는 만점 활약을 펼쳤다. 1회 1사에서 오타니는 화이트삭스 선발 마이클 코팩의 95마일(152.9km) 직구를 걷어 올려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생산했다.

3회 볼넷, 5회 안타로 출루에 성공한 오타니는 4번째 타석에서 재차 홈런포를 가동했다. 7회말 1사에서 우완 투기 투상의 시속 88.1마일(141.8km) 스피리터를 통타해 좌월 솔로 홈런을 작렬했다.

타석에서 오타니는 3타수 3안타 2홈런 2타점 1볼넷 2득점을 기록, 공격을 진두지휘했다.

시즌 27호, 28호 홈런을 때려낸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부문 선두를 유지했다. 여기에 시즌 타율을 0.294에서 0.304로 끌어올리며 3할 타율에 복귀했다.

오타니는 마운드에서도 빛났다.



LA 에인절스 오타니 쇼헤이가 시즌 27, 28호 홈런을 터트렸다.

6⅓이닝을 책임지며 안타 4개, 볼넷 1개만을 허용했고 삼진 10개를 속아냈다. 점수도 단 1점만을 내주며 3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를 달성했다.

에인절스의 4-2 승리를 이끈 오타니는 시즌 7승째(3패)를 수확했다. 평균자책점은 종전 3.13에서 3.02로 낮췄다.

한편 2연승을 달린 에인절스는 시즌 전적 44승 37패가 됐다.

뉴시스